



삶의 향기

모난 말, 둥근 말 그리고 나의 말

손 시 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언어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타인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어느 옛사람은 "나 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맡을 것이/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맡을 까 하노라" 같은 시조를 읊었는가.

일단 입 밖으로 뱉어진 말은 옆길러진 물, 쓴 화살과 같아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에 앞서 나쁜 말을 한 다거나 무심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택은 마음 새롭고 애아울러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말하기 전에 잘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처럼 과

목은 언제나 미덕이 된다. 우리는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반면 수다스러움과 경박은 터부시한다.

아울러, 말은 마음의 주문(呪文)과 같다. 말은 예로부터 천지신명을 감응시킬 수 있는 신령스러운 힘이 있다고 믿어졌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는 언어적 존재다.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지각한다. 결국 언어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해인 수녀의 시 "나를 키우는 말"은 말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범람하는 언어 속에서 때로 날 것의 말들은 부패하여 유해한 독소를 발생한다.

누군가에게 발하된 말은 그 즉시 공격 언어가 된다. 말은 필연적으로 사적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요즘 유행하는 '뒷담화'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대화 자리에서 함께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독자의 창

집회 소음 아닌 공감 전하는 소리 되기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집회시위 문화는 폭력적인 집회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촛불집회,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폭력적인 집회는 거의 사라졌으나 집회 현장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분쟁의 씨앗은 '소음'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집회 현장의 사람들은 줄어들

었지만, 차량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소리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권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소음을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

기로 인해 늘어났던 집회시위 수요가 올해 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 초기와 맞물리면서 집회시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창현(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독자의 편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소방 기간제 근로자에 최종 합격한 후 2022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로서 익산 소방 신동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소방사에서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기대 반,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 반으로 첫 출근을 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생활이라 많이 무섭고 두려움도 컸지만 반장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익숙해지고 점점 흥미가 붙게 되는 거 같다.

센터 차원에서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왔기

에 다양한 사회생활에서의 교육을 해주시는 게 저 같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정말 귀중한 시간인 거 같아서 기뻐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급차에 타고 구급대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위해 밤새워 고생하시는 소방대원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오아름(익산소방서 신동119안전센터 기간제근로자)

이륜차 교통안전 위한 특별단속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식 등 주문 증가로 배달 이륜차의 운행 및 영농철을 맞아 이륜차운차의 운행이 잦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5월 한 달 동안 홍보활동을 거쳐, 6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집중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바이크 2대가 고속주행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도로에서 특히 250cc 초과 이륜차의 고속주행과 칼치기 등 난폭운전, 2대 이상이 앞뒤로 줄을 지어 운행하는 공동위험 행위, 배달 이륜차의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등은 인해 국민신문고, 스마트 제보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

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여주는 홍보형 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6.7월 2달 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 다발 지역과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하여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실적 위주의 단속과 단속을 위한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되, 사고 야기나 주요 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퍼너 등을 활용하여 체증 후 범법 처리 및 사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신일섭(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Subscription information table with contact details for Saejeonbuk Shinmun.

Large advertisement for Saejeonbuk Shinmun subscription with contact number 063) 230-5712 and a list of regional offices.